

16강 수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사명(요 18~21)

오늘의 포인트

문맥/구조

18~19장 예수님의 수난과 죽으심--요한복음의 클라이맥스

20장 예수님의 부활

21장 부활 이후(후기/부록)

수난과 죽으심(요 18~19)

때가 이르렀다!

(12: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컨트롤타워

(10:17~18)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8: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1. 장소: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로 가셨다(1~2).

(18:1~2)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2. 시간: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올 시간을 충분히 주셨다.

(18:3)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군대’= 600명으로 이루어진 로마의 보병대의 단위

—대제사장 가야바가 총독 빌라도에게 요청해야 가능한 일

—로마 군대를 포함해서 약 1000여명 정도 되는 병력이 움직였다.

3. 용기: 배신하는 유다와 군대를 맞아 질문하시는 주님(3~4).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악을 피하지 않으시고 직면하셨다.

4. 능력: 예수님은 주 여호와다(5~6).

(18:5~6) 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계 19: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은 죽으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5. 사랑: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주님(7~9; 요 6:39).

(요 18:7~9) 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6. 순종: 스스로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주님(10~11; 시 75:8; 사 51:17; 렘 25:15)

(18:10~11) 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빌라도 앞에 서신 그리스도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 뜰에서 심문을 받으신 후, 가야바의 법정에서 심문을 받으신 주님은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끌려가셨다.

베드로는 그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13:38) 주님을 세 번 부인하였다.

요한복음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신 주님을 공관복음보다 상세하게 묘사한다(18:28~38).

왜 빌라도의 법정에서 서셔야 했는가?

1. 예수님은 말씀하신대로 이방인에게 넘기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셔야 했다(마 20:18~19; 요 3:14; 12:32,33).

(12:32~33)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2.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당대 최고 법정의 판결을 받으셔야 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거절한 것은 단지 유대인만이 아니었다.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로마 제국의 법정, 즉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주님의 선언: “나는 하늘에서 온 왕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37)

(18:37)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대

빌라도의 무죄 선고

1.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18:38)
2.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19:4)
3.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9:6)

유대인이 예수님을 고소한 진짜 이유

(요 19: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누가 권세자인가?” —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 (19:8~12)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 9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 10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 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 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는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 보다 자기의 권력과 지위와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이 더 두려웠던 사람이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대관식

- (3:14~15)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12:32~33)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왕의 왕으로 그 보좌에 오르시는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영광의 사건이다(요 7:39; 12:16,23).

F. F. Bruce, “그리스도는 가장 불쾌한 고문의 도구인 십자가를 영광의 보좌로 바꾸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유효한 원리

(롬 8:17~18)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빌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관식을 통해서 모든 신자들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옫의 고난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의 차원으로 승화된다.

새로운 가족-십자가 공동체

(19:26~27)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마리아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개인적인 부탁의 수준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요한 절정이며, 이 순간 십자가 앞에서 태어난 한 새로운 인류를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세우시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의 출발을 선언하심이다.

(마 12: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다 이루었다!”

(19: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한 단번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스도를 장사지낸 숨겨진 제자들

(19:38~39)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백 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참 믿음을 가진 참된 제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그 믿음을 드러냈다.

부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절반의 복음이 아니라 재앙적 비극이다.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전 15:17)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롬 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의 정황(1):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무덤 방문

(20:1)“안식 후 첫 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안식 후 첫 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처음에 무덤에 간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 (마 28:1) 다른 마리아와 함께
- (막 16:1)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함께
- (눅 24:10) 요안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새벽 3~6시경

왜 갔는가?

- 주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운명하셨고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6시 전에 장례 일정을 마쳐야 했기에 급히 이루어졌다.
-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 없었다.
-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안식후 첫날 일찍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장례를 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마리아의 염려와 마리아가 본 것

- 마리아는 무덤의 돌을 어떻게 굴러 열까 염려했다(막 16:3).
-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돌이 굴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알렸다.
- 마리아가 전한 것은 단지 돌이 굴러져서 무덤이 열렸다는 사실이었고, 마리아는 도굴꾼들이 시신을 훔쳐 갔다고 생각했다.

(20:2)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부활의 정황(2): 여인들이 본 것

- 마리아가 베드로에게 간 사이,
- 남아있던 여인들은 돌을 굴러낸 천사를 만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 이 여인들도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무덤을 떠났다.
- 여인들이 떠난 후에,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에 도착했다.

요한과 베드로의 부활 신앙

정황의 순서

-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고 요한은 무덤 밖에서 무덤 안의 수의를 '보았다'.
(20:5)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 베드로는 무덤에 들어가 수의와 머리를 씻던 수건을 '살펴보았다'.
(20:6~7) 6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씻던 대로 놓여 있더라
- 요한은 무덤으로 뒤따라 들어가 보고 이해하고 믿었다.
(20:8) 그 때에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과 베드로가 본 수의

유대의 장례법: 시시늘 세마포로 싸는데 어깨 위 목 아래 부분까지 싸고, 얼굴은 별도의 세마포 천으로 터번처럼 둘러싸고 돌 무덤 안에 머리를 바깥 쪽으로 하여 관 없이 눕혀둔다. 세마포로 쌀 때에는 침향을 계속 발라가면서 쓴다.

- (20:7) 또 머리를 씻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씻던 대로 놓여 있더라'
- 수의가 시신에 단단하게 감겨져 있던 나선형 모습 그대로 있었다.
-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누에고치와 같은 모습'
- 몸이 증발하듯이 빠져나온 모습

요한의 믿음 — 부활의 증거를 보고 믿었으나 말씀에 의해 확증되지는 않은 믿음

- (20:9)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 요한은 빈 무덤과 수의의 모습을 보고 이해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
- 그러나 구약성경의 예언을 알고 믿은 것은 아니다.
- 요한의 믿음은 빈 무덤과 수의를 통하여 부활을 믿고 후에 성경말씀으로 확증을 받는 믿음이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몸

- 단단히 잠가 둔 문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요 20:19)
-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다가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았을 때 갑자기 보이지 않게 사라지셨다(눅 24:31).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

요한과 베드로가 무덤을 떠난 뒤, 다시 무덤에 와 홀로 울고 있는 여인,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사람이 되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

(눅 8:2,3) 2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 그녀의 고향 막달라: 갈릴리 호수 서안에 위치한 마을
- 그녀의 과거: 일곱 귀신(귀신의 역사가 아주 컸다)이 들렸다가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 사람이 된 사람.
- 축사 이후: 다른 여인들과 함께 자신의 가진 재물로 주님을 섬긴,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외에 예수님을 수종했던 여제자들의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이 여인들은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진 여인들이었을 것이다.
- 마리아는 남달리 주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었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최후까지 십자가 곁에 남아있었던 여인이었고(요 19:25; 마 27:55~56; 막 15:40; 눅 24:49), 장사지낼 때에도(마 27:61; 막 15:47; 눅 23:55~56),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도 제일 먼저 날이 아직 어두울 때에 무덤에 올만큼 주님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마 28:1; 막 16:1; 눅 24:1,10). 게다가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오해

6세기 말 교황 그레고리: 막달라 마리아를 베다니의 마리아와 동일인으로 혼동하고(요 12:1~8), 또 눅 가복음 7장에 나오는 죄인이었던 여인과 동일시하면서(눅 7:36~50) 막달라 마리아가 이전에는 창녀였다는 설이 전해지게 되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마리아

(20: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여’: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남성에 대한 일상적 존칭.

대반전: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마리아는 주님이 이름을 부르실 때, 그가 주님이심을 인식했다.

(20: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마리아의 신앙고백

‘랍오니’— ‘나의 선생님!’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되던 호칭.

(요 20: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마리아야, 이제는 네가 전에 나와 가지던 관계의 방식으로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다. 이제 나는 승천하여 완전한 영광을 입을 것이고 너희는 그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제 나는 부활한 몸으로 잠깐 너희에게 전과 같이 나타나겠지만, 이제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승천할 것이니 전처럼 나를 대할 수는 없다”

—“나를 붙들(어두)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내 형제들에게’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이고 영광스러운 특권

교회, 보냄을 받은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문을 닫고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

(20:19b~21a)

19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의 전제조건: 평안 + 기쁨 + 성령 (= 믿음의 열매 = 하나님의 선물)

(20: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겔 37: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이 새로운 피조물, 살아있는 존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

교회의 권세:

(20: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향한 죄사함을 선포하는 권세를 주심
(죄를 사하는 권세가 아니라, 선포하는 권세)

의심많은 도마의 탁월한 신앙고백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본 도마의 탁월한 신앙고백

(20:28)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20:2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누명 벗겨주기

—모든 제자들이 다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신앙고백: ‘주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할 수 없어서 ‘아도나이’(나의 주님)라고 불렀던 방식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요한복음의 절정이다!

—29절은 비교도 책망도 아닌 칭찬이다. “잘 하였도다. 네가 이제야 나를 보고 믿는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요는 믿음이 객관적이나, 주관적이나 혹은 증거를 보았느냐 보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자족성에 대하여 말씀하심이다.

패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요 21)

주님 없는 삶의 허무함 vs.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삶의 풍성함

왜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는가?

—자기 의가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기독교 신앙은 자신의 인격, 실력,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과 말씀에 신뢰를 두는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드디어 자신을 믿지 않는 베드로를 만난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모든 필요충분조건이다.

오늘의 적용

-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 교회는 적대적인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신앙은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